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9.30. ~ 10.6.)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왕상 2 - 9	갈 6 - 엡 6
	개인	겔 33 - 39	시 81 - 90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제한 속죄		
	<p>에베소서 5장 25절</p> <p>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p>		



시편 81,82편 /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개요**

- 81:1-5 하나님을 찬양하라
 81:6-16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82:1-8 세상을 심판하소서

시편 81편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노래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인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시 81:1,2). 주님이 정하신 절기(아마 유월절)에 구원의 증거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시 81:3-5).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불순종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시 81:6-12).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시 81:13-16).

시편 82편은 가장 높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시 82:1). 여기서 "신들"(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재판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소유자이기에 세상을 그대로 심판하시길 구합니다(시 82:2-8).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 판단과 불평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의 불의를 심판자이신 주님이 헤아려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83,84편 /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개요**

83:1-18 온 세계의 지존자

83:1-12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국가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 아뢰며, 침묵하지 마시길 구합니다(시 83:1-8).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그들을 위해, 또 원수들을 향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시 83:9-11).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수들을 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드러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시 83:12-18).

시편 84편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시 84:1-7). 그곳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시 84:8). 주님이 세우신 왕의 안위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시 84:9-12).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히 10:25).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옵소서.

10월 2일(수)

왕상4,5

엡2

겔35

시85

시편 85편 /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소서

개요

- 1-3 용서하신 하나님
- 4-7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
- 8-13 회복에 대한 기대

시편 85편은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1-3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자신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4-7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8-13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주님이 보이신 인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요 16:33).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평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믿으며, 우리 용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실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시편 86편 / 주만이 하나님이니이다**개요**

- 1-7 내게 응답하소서
 8-13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14-17 은총을 보이소서

시편 86편은 가난하고 궁핍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경건하게 살기에 힘쓰며 주를 의지하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1-7절). 기도는 찬양으로 바꿉니다. 주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을 돌립니다(8-13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10절).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는 여전히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14-17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압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경험이기에도 찬송가 가사와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499장)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만이 나를 도우시며 힘주시고 위로할 이이십니다. 오늘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께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10월 4일(금)

왕상7

엡4

겔37

시87,88

시편 87,88편 / 구원의 하나님이어

개요

87:1-7 주님의 시온

88:1-18 흑암 속의 기도

시편 87편은 주님의 성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터전을 세우신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광스럽게 됩니다(시 87:1-3).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친히 시온을 세우십니다(시 87:4-7).

시편 88편은 우울과 고통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시인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곤란함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시 88:1-9). 그는 죽기 전에 도우심을 구하는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시 88:10-14). 그는 급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합니다(시 88:15-18).

시편 88편은 마치 우리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 시편은 주님을 향한 기도와 응답이 다 담겨 있지만, 이 시편은 계속되는 기도만 하다가 마칩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 끊임없이 주님만을 부르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께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흑암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는 줄 믿습니다.

10월 5일(토)

왕상8

엡5

겔38

시89

시편 89편 /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개요

1-37 하나님의 언약

38-51 그친 영광

52 2권의 맺음말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1-18절; 삼하 7:8-18). 다윗에게 주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앞세워 기도합니다(삼하 7:13). 주님이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19-29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범죄하였을 때 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30-37절). 그러나 그 언약과 달리 영광이 그치고 왕위를 잃으셨습니다(38-45절). 그로 인해 긴 고통의 날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채로 간구할 뿐입니다(46-48절). 그들을 향한 비방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애원합니다(49-51절). 그리고 시편 제3권이 마칩니다(52절).

시편 89편은 슬픈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을 믿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였고, 그 모든 약속은 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신자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되뇌이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자기 현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할 뿐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붙들니다.

시편 90편 /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개요**

1-2 영원하신 하나님

3-12 짧은 인생

13-17 주님의 은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2절). 한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꽃과 같습니다(3-6절). 주님의 분내심에 우리는 소멸되며,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7-10절). 우리 날이 짧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니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11,12절). 그 저 주님의 은총을 내리셔서 주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13-17절).

인생은 짧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이 지혜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의지함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 길어도 짧고 그 결말도 비참합니다. 인생의 소망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전 12:13,14). 우리 날의 짧음을 계수하는 자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엡 5:15,16).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허락하신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마 6:33,34).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날아가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 우리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순모임

<약 1:9-11, 교회의 영광>

1.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부터 시험이 들어옵니까?(10절)
2. 내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 받거나 시험 당하는 세상의 부에 대한 예를 들어볼 수 있나요?
3. 부한 자의 자랑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10,11절)
4. 주님의 교회가 자랑해야 할 "자기의 높음"은 무엇인가요?(9절; 요 1:12)
5.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실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약 1:2-4, 5-8)
6. 시편 23편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빗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